

꿀찌 한화 ‘선발 9승 미스터리’

선발승 비율, KBO리그 역대 최저...김성근 감독 ‘퀵후크의 비극’



한화 선발진의 '실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비극과 희극 사이다. 5일까지 한화가 거둔 28승(2무43패) 중 선발승은 겨우 9번. 한화의 선발승 비율 32.1%는 역대 최저치다. 한화 수장인 김성근 감독.

니퍼트 한 사람보다 못한 팀 선발승
과도한 선발교체...불펜야구 역효과



비극이라고 해야 할까. 희극이라고 해야 할까. 비극이라면 울어야하고 희극이라면 웃어야하는데, 울어야할지 웃어야할지 모르겠다. 퀵후크(3실점 이하 선발투수 6회 이전 조기강판)의 대명사가 돼버린 한화가 KBO리그 새 역사에 도전(?)하고 있다. 21세기 최소 선발승 기록과 KBO리그 역대 한 시즌 최저 선발승 비율 신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김성근 감독이 지휘하는 한화는 5일까지 올 시즌 73경기를 소화한 가운데 28승2무43패(승률 0.394)를 기록하며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아직 30승 고지를 밟지 못한 팀이다.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더 기막히다. 시즌 28승 중 선발승은 단 9승

(32.1%). 팀 전체의 선발승이 두산 더스트인 니퍼트(11선발승)와 마이클 보우덴(10선발승), 넥센 신재영(10선발승)의 개인 선발승보다 적다. 한화 팀 내 선발승은 퇴출된 외국인투수 에스밀 로저스와 알렉스 마에스트리, 그리고 송은범이 기록한 2승이 최고 기록이다.

경기수로 보면 시즌(144경기) 반환점을 돌았다. 산술적으로 한화는 올 시즌 팀 전체의 선발승 합계가 자칫 10승대에 그칠 수도 있다. 선발로 테이션이 정착되고, 투수 분업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현대야구에서 이런 기록이 가능할까.

일단 2000년대 이후 기록만 뽑아 보면 한 시즌에 선발승이 20승에 미치지 못한 팀은 없었다. 21세기 KBO리그에서 한 시즌 가장 적은 선발승은 2000년 SK가 기록한 20승. 그해 SK는 창단팀으로 해체된 쌍방울 선수들과 다른 팀에서 지원해준 선수로 겨우 팀을 꾸렸다. 올 시즌 팀 연봉총액 1위에 오른 한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선수 구성이었다. 특히나

그해는 정규시즌 133경기를 소화하던 시절로 지금보다 11경기나 적었다. SK는 시즌 44승으로 최하위에 그쳤는데, 그해 승수 대비 선발승 비율 45.5%는 21세기 최저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 다음은 2014년 한화(23선발승-선발 비율 46.9%)였다. 32.1%의 선발승 비율은 20세기를 포함하더라도 KBO리그 역대 최저 기록이다.

1982년 KBO리그 출범 후 1999년까지 30%대에 그친 팀은 딱 한 팀 존재했다. 1997년 쌍방울이었다. 그해 71승을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선발승은 38%인 27승에 불과했다. 당시 쌍방울 사령탑은 현재 한화를 지휘하고 있는 김성근 감독이었다. 그해 김현욱이 구원으로만 20승을 올리는 등 쌍방울은 선발 대신 불펜에 의존하는 '발레 마운드'를 운영했다. 선발투수는 사실상 바람잡이였다.

한 시즌 최소 선발승은 역대 최약체 팀으로 꼽히는 1982년 삼미의 9승이었다. 이와 함께 1982년 롯데

프로야구 경기 결과 <5일>

대구 LG 3 : 7 삼성

* 잠실, 문학, 수원, 마산 경기는 우천취소

(시즌 31승 중 19선발승)와 1999년 쌍방울(시즌 24승 중 14선발승)이 선발승 20승에 도달하지 못한 팀이었다. 그러나 1982년 삼미는 시즌 15승(65패) 중 선발승이 9승으로 비율은 60%였다. 1982년 롯데와 1999년 쌍방울 역시 팀 승수가 적었을 뿐 선발승 비율은 각각 61.3%와 50%를 기록했다.

한화는 올 시즌 퀵후크를 무려 37차례나 단행했다. 단연 1위다. 가장 적은 두산(9차례)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다시 말해 3실점 이하로 막고 있는 선발투수를 6회 이전에 끌어내린 것만 해도 전체 경기수의 50.7%나 된다. 퀵후크 37경기에서 한화는 13승2무22패를 기록했다. 승률 0.371로, 오히려 시즌 승률(0.394)보다 낮다.

▶4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Rio2016 D-30 올림픽축구대표팀 '기적을 쓴다'



올림픽축구대표팀의 에이스 권창훈이 5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개막 D-30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팀의 주축선수답게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파주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에이스 권창훈 “난 큰 무대 체질”

“A대표팀 경험으로 자신감 얻었다”
와일드카드 형들과의 가교 역할도

‘에이스(ACE)’는 야구에서 팀의 기동투수를 일컫는 말이다. 최근 들어서는 종목을 불문하고 해당 팀에서 중심을 이루는 선수를 뜻하는 단어로 쓰인다. 그런 의미에서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할 올림픽축구대표팀의 에이스는 권창훈(22·수원삼성)이다. A대표팀을 오간 경험이 있는 그는 올림픽대표팀의 공격 전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자원이다. 축구팬들이 그에게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잇을 수 없는 A대표팀 경험

권창훈은 지난해 K리그 클래식(1부리그)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국가대표팀 울리 슈틸리케(62·독일)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가는 곳마다 그는 감독의 기대에 100% 부응했고,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았다. 지난해 말에는 수원삼성, A대표팀, 올림픽대표팀에 걸쳐 ‘세 집 살림’을 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A대표로 7경기에 출전해 3골, 올림픽대표로 14경기에 나서서 7골을 수확했다.

권창훈은 5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리우올림픽 개막 D-30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그렇게 많이 뛰어본 것은 (작년) 처음이었다. 힘들었다. 하지만 선수니까 많은 경기를 뛰는 것이 좋다. 경기에 나서면서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A매치 출전은 권창훈에게 잇을 수 없는 자산이 됐다. 그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크다. A매치를 뛰는 그 자체가 자신감을

준다. 축구 잘하는 형들과 뛰는 것도 큰 힘이다.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미소를 지었다.

와일드카드(24세 이상)로 발탁된 손흥민(24·토트넘), 장현수(25·광저우 푸리)와 함께 A대표팀에서 생활해온 권창훈은 올림픽대표팀에서 23세 이하(U-23) 멤버와 와일드카드 선배들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그는 “형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없어서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워낙 좋은 형들이라 먼저 다가와서 밝은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상 우려? 통증 없다!

지난해 어느 때보다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경험을 쌓았지만, 그 여파로 권창훈의 몸은 과부하가 걸렸다. 아킬레스건 통증에 이어 족저근막염까지 시달렸던 그는, 소속팀은 물론이고 6월 국내에서 개최된 4개국 올림픽대표팀 친선대회에서도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다. 올림픽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권창훈의 몸 상태는 올림픽대표팀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권창훈은 “경기를 하고나면 통증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 후 통증이 많이 없어졌다. 점점 더 좋아질 것 같다. 80~85% 정도 회복됐다. 치료도 잘 받고 있다. 올림픽에 가기 전까지 완쾌될 것”이라고 몸 상태를 설명했다. 이어 “올림픽은 큰 대회이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진다. 그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

▶리우올림픽 관련기사 2·3면
파주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NAVER FM에셋 을 검색하세요

아는 사람 부탁으로 마지못해 가입한 보험들
보장내용도 잘 모르고,
보험료도 부담스러우십니까?

비교진단으로 간편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내 인생이 걸린 보험. 모든 보험을 비교해보고 가장 유리한 것으로 하셔야죠?
선진국 방식의 획기적인 보험 '비교진단' 서비스 - 에프엠에셋.
대한민국에 등록된 수많은 보험사들의 모든 보험을 비교진단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막아주고, 꼭 필요한 보장은 콕콕 채워줍니다.



보험전문가 에프엠에셋의 맞춤형 해결법!

- 노후대책을 위해 나에게 딱 맞는 '연금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종신보험'은 어떻게 드는 게 좋는지?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꼭 필요한 '간병보험'은 어떤 게 유리한지?
- 보험을 통한 '절세 노하우'까지?

보험은 FM대로! 에프엠에셋의 비교진단 설계!

- 동일한 보장에 보험료는 저렴한 상품을 찾아주고!
- 중복가입으로 출출 낭비되는 보험료는 막아주고!
-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암보험을 찾아주고!
- 나에게 꼭 맞는 노후보장 대책도 세워주는 비교진단 설계!

이미 가입한 보험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도
보험전문가가 '비교진단'해 드립니다.



FM에셋

24시간
무료상담

080-235-0119